

지역 매 아리



송승현 김제경찰서장, 21일까지 지역경찰관서 초도방문

송승현 김제경찰서장은 13일부터 21일까지 월촌지구대를 시작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치안행정을 구현하고 근무자 격려를 위한 지역경찰관서 초도방문을 실시한다.

송승현 서장은 취임사에서 밝혔던 '기본과 원칙에 기반을 둔 신뢰치안'을 이뤄내기 위해 민생치안 점검으로 첫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먼저 관내 치안상황 및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일선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 서장은 "최일선에서 주민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항상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에게 따뜻한 경찰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송 서장은 앞으로도 현장직원 및 지역 주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치안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올 주민세 균등분

4만3372건·6억6400만원 부과

완주군이 2018년 주민세 균등분으로 4만3372건, 6억6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주민세 균등분은 해마다 8월1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에게 과세되는 군세다.

납부금액은 ▲각 세대별 세대주에게 1만원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만원 ▲법인인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10%가 가산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금융기관 등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스마트 워터스 앱), 전화 (ARS 1544-1414)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완주=이종복 기자

갈색날개매미충을 잡아라

완주군, 내일 고산면 등에 과수에 해로운 돌발해충 예방 위한 항공방제 실시

완주군이 과수에 심한 피해를 입히는 외래 돌발해충 '갈색날개매미충'의 방제를 위해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갈색날개매미충 항공방제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산면, 비봉면 등 사전 신청 접수된 8개 읍면 약 400ha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갈색날개매미충의 산란기 활동에 대비한 것으로 갈색날개매미충은 성충과 약충이 과수를 흡즙해 수세 약화, 배설물에 의한 그늘음 및 상품성 저하, 심할 경우 과수 고사 등의 피해를

준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방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완주군은 이번 항공방제에서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친환경작물 재배지는 항공방제 구역에서 제외해 농약살포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인근 지역 꿀벌과 축산농가에는 흡식모를 피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갈색날개매미충은 산란과 연결된 과원에 피해를 주고 있어 과수농가와 산림부서간 공동

협력 방제가 중요하다"며 "항공방제 시기에 맞춰 과수농가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제를 실시해야 방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방제작업을 매일 새벽에 착수해 오전 중에 완료하도록 해 주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방제는 지역별로 이서(15일), 소양·봉동(16일), 용진·화산·경천(17일), 고산·비봉(18일) 순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중국어학교 여름방학 특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중국어, 회화부터 문법까지

완주군, 중국어학교 여름방학 특강 수료

완주군 중국어학교 여름방학 특강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13일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사장 박성일)은 다중지능계발사업 중 제11기 완주군중국어학교 여름방학 특강을 완주군 고산면 인재개발관에서 진행,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지난달 30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개반 7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참여 학생들은 매일 6시간 동안 중국어 회화, HSK(한어수평고사) 자격증 대비 듣기, 독해, 쓰기 집중학습, 중국어 문법 등의 수업을 받았다.

또한 특강 수업의 마지막 날에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함께 봉동읍 둔산리 휴시네마에서 영화상영 및 삼겹살 파티를 하는 등 수업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수업에 참여한 완주중 2학년 박소원 학생은 "이번 특강을 통해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 HSK 5급 독해 부분의 실력이 월등히 높아졌다"며 "회화로 활용 가능한 중국어 단어량 또한 많아져서 방학을 알차게 보낸 것 같아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 건강돌봄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와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건강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안부전화와 방문간호사 직접방문 건강서비스 제공, 문자발송 등을 하고 있다.

더불어 무더위 워터에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해 '찾아가는 노래교실' 및 '말랑말랑 두뇌건강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수, 부채, 폭염대비 건강수칙 리플릿 제공, SNS 및 페이스북 등 온열질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폭염대응 건강관리 요령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폭염이 기상재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가져오는 것은 폭염이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낮의 뜨거운 햇빛은 피해야 한다.

폭염이 장기화 될 것 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김제시보건소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바로잡습니다

8월 13일자 10면 기사 가운데 '지평선축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열렸다'와 관련 '김제시와 전북도 국제교류센터는 블라디보스토크 시청과 극동경제서비스 대학을 방문, 비빔밥과 한지공예 시연으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다고 알려왔습니다.

확인 결과 김제시는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와의 MOU를 통하여 도민네트워킹에서 시행한 비빔밥 한지공

예 문화교류행사에 참가하고자 하였으나 제반환경 등의 사정으로 극동경제서비스 대학에서 진행한 한지공예 문화교류 행사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것.

김제시는 시행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여 보도 자료를 배포해 전라북도 민네트워킹단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제=곽노태 기자

“거룩한 희생·헌신에 존경의 마음 전달”

김제시,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김제시는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13일 국가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문·격려했다.

김제시는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13일 국가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문·격려했다.

이번 위문은 박준배 김제시장과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 네분을 모시고 관내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유족들의 애국정신과 순국선열의 발자취에 대해 경청하고 이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준배 시장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한 희생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유족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이념 참석한유족들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다 목숨을 치르거나 사랑한 애국지사의 후손들로 그

공로를 인정받은 공훈은 애족정신을 수련한 정동원, 건국포장을 수련한 장한조, 유종규, 대통령표창을 수련한 양성도의 후손들로서 현재 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김제시에서는 매년 삼일절과 광복절 등 보훈관련 국경일을 맞이하여 독립유공

자 유족들과 간담회를 마련해 위로 격려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조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신 애국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평화의 소녀상, 오늘 제막

홈플러스사거리 신협앞에

김제평화의소녀상이 여덟번째 '세계 위안부의날'인 오는 14일 저녁 7시 30분 김제홈플러스사거리 신협앞에 세워진다.

전북 도내 6개 시 가운데 유일하게 소녀상이 없는 김제시에 '평화의소녀

상'을 건립하기 위한 소녀상추진위가 지난 5월 18일 김제교육지원청 3층 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에 돌입했다.

기관·단체의 주도가 아닌 민간차원의 모금활동이라서 초창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뜻에 동참하는 학교와 단체,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급속도로

김제평화의소녀상 건립 열기가 확산됐고 지난 31일에는 모금액이 5천만 원을 돌파했다.

소녀상추진은 위안 뿐 아니라 작기에 서부터 석재공방, 인쇄업체, 광고사, 음향 등 거의 대부분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으며, 제막식 출연진도 최대한 재능기부 받고 화려하지 않지만 의미 있고 엄숙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로 기획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